

#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4: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0, 1, 2, 3부/히브리서 12:1-3 ..... All together 다같이  
4부/에스라 9:1-10:15

말씀 Message ..... 0, 1, 2, 3부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히브리서 강해(37)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팁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애쓰라 예살청년!(11)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믿음 in '21 (2021년 주제곡)

\*축도 Benediction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강문구 목사 / Rev. Abel Kang

# 믿음의 끓는점을 돌파하라!

## Break Through the Boiling Point of Faith!

"I-ttitude"라는 2021년 베델이 나아갈 방향과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결정되었을 때 저는 어떻게 저 문구를 청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2021년 예살의 주제를 "믿음의 끓는점을 돌파하라!"로 정하게 되었고 예살의 목회진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코로나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사실 예살의 청년들만 보아도 강단에서, 그리고 셀목자를 비롯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청년들을 섬기고 격려하며 신앙의 역동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 쉽지 않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한파는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얼어붙게 했습니다. 베델의 장년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2021년 예살의 청년들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쪽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예살의 청년들은 의심이 아닌 믿음을 택합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을 택합니다. 자존심이 아닌 용서를 택합니다. 나태가 아닌 헌신을 택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선택한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조금씩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이 끓는점을 넘어서듯 예살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결정적 사건을 2021년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살 뿐 아니라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흥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이번 한 해 동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을 때 그 여정이 위대했던 이유는 바다가 갈라졌다는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위대한 길이었던 까닭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가장 위대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발걸음입니다.

2021년,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의 내면을 순종이란 도끼로 내리쳐 깨뜨립시다.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신앙의 온도를 1도씩 높여갑시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끓는점을 돌파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When a theme was decided for Elijah Early Morning Prayer, "Attitude of Faith Determines Altitude of Faith", which follows Bethel's direction for 2021, "I-ttitude", I began to think about how this could be translated into a language for young adults. God led my heart to choose the Yesalm Chapel's theme for 2021 as "Break Through the Boiling Point of Faith". I shared this vision with Yesalm pastoral staffs.

Looking back on last year, our faith and life were like a frozen ocean due to Coronavirus. The reality is that it was not easy. Even with Yesalm young adults, from pulpit to cell leaders, we have put on our best efforts to not lose dynamic faith by serving and encouraging. The wave of Coronavirus has frozen not just the economy but our faith. How was it for Bethel adult members?

Yesalm young adults, in the midst of pandemic situation, decided to raise the temperature of faith in all of our choices for year 2021. This year, Yesalm young adults choose faith over doubt. We choose love over hatred. We choose forgiveness over pridefulness. We choose dedication over slothfulness. Accumulation of each day's choices will gradually raise the temperature of our faith. Then, there will be a moment when we cross the boiling point. Yesalm young adults will experience a decisive moment of faith of meeting Jesus in 2021. My hope for all Bethel members, not just Yesalm young adults, is that we all will have miraculous experiences of faith in our lives this year.

Israelite's journey was great not because of parting of the sea when they crossed the Red Sea like dry ground. The real reason for greatness was that they walked with God who led them with pillar of fire and pillar of cloud. The road we are on may seem mediocre or even pathetic in our eyes, but if the road you are on is with God, then it would be the greatest road and the most glorious steps.

In year 2021, let's break our inner self that has been frozen with ax of obedience. Let's raise up temperature of faith by 1 degree at a time! Then we will break through the boiling point, and experience what only God can do.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 제 37편

주일설교시리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팁**  
(히 12:1-3)

1. 경기장에 갔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언제, 누구랑 갔습니까?

2. 허다한 증인들이 관객석에 앉아 응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응원을 받으며 경주에 나선 선수입니까?  
(고전 10:12, 고전 9:19-27)

3.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팁을 본문은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아래에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1) \_\_\_\_\_ (1절, 고전 9:25)

2) \_\_\_\_\_ (2절, 고전 9:26)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

3) \_\_\_\_\_ (2b-3절)

4. 다시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결단으로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기도하십시오.

■ 적용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적용하기



목회자 신년인사  
1세 목회자

# 끝까지 충성



**정승락 목사**  
(기획/행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들께 먼저 큰 절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열

새를 통해 주신 각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끝까지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에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제 마음에 주신 단어가 "끝까지 충성"이었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과 그분의 몸된 베델교회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한 해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질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혼란한 소리와 눈으로 보이는 코로나 사태에 요동하지 않고, 모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끝이 납니다. 그 후를 계획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역의 고도를 높이기 소망합니다.

팬데믹의 음산한 기운에 짓눌렸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저귀는 봄이 다가옵니다. 2021년 코로나를 뒤로 하고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하는... 그리하여 저 높은 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형균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쇼미더 믿음!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2:18)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며 시작할 올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천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입니다.

팬데믹도 결코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나의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여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오직 그 분만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벽들은 견고해 보이지만, 나를 들어서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로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로 더 높은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께 열납되는 (시19:14) 2021년에는 몽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욱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나 또한 믿음 목장과 예배 사역팀에서 은혜롭게 섬기는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성필 목사**  
(소망 목장/선교)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많은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했고 순간순간 실망스럽고 심지어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길을 뒤 돌아보면 언제나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충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I-ttitud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2021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 그분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 여러 단어 중에 '미쁘시다'란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글 성경은 '믿을 만하다(Faithful)'라고 번역할 법도 한데 '미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처지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표현인 것 같아 좋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미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예상 밖에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되기를 원하며, 지금 서있는 곳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미쁘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충경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커밍순' 목사로 알려져 부임한 지 벌써 만 2년이 가까워 오고 있네요. 이제는 일명 '주보남'(주보 읽어주는 남자)으로, '카타콤 기도회 인도자'로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름으로 성도님들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주보남'으로, 그리고 '카타콤 기도회 인도자'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왕래가 끊어져,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만남이 힘든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 브리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과 사람들, 성도간의 영적, 정서적 접촉점을 만드는 브리지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충경 목사이고 싶습니다.

2021년 목양적으로는 사랑목장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을 섬기는데, 이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목장'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결되는 사랑목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역적으로는 베델뉴스 및 카타콤 기도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및 평생교육을 맡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이라는 슬로건처럼 훈련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일을 섬김과 기도로 감당하겠습니다.

목회자 신년인사  
1세 목회자

# 독수리가 창공을 날 듯



**김홍식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안녕하세요? 은혜목장을 담당하며, 전도폭발과 이웃사랑 사역을 맡은 김홍식 목사입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간다고 하죠.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들고 아픈 분들에게,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을 최고로 높게 여기고 기도로 나아가야만, 나와 더불어 주위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가장 귀하기에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다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사역 팀장님들과 셀 목사분들과 이런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 필요한 곳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을 찾아서 섬기고 싶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물이 성전에서부터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아나는 분들이 심히 많아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김섭리 목사**  
(베델위십)

습관이란 사랑하고 추구하는 바가 어떤 행동으로 반복되면서 무의식 중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간극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분을 사랑할 때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사랑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축도로 마치게 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들어 있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예배의 의미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키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며 예배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고 전도사**  
(새가족/경조)

지난해는 개인, 교회 모두가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게 하셨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음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엘새를 통하여 강단에서 외치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2021년도를 힘차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담임 목사님이 정하신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라는 모토는 엘새 기간 내내 우리의 가슴을 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게을렀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경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을 숨쉬게 해주셨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회개와 눈물과 감동이 새롭게 스며왔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2020년 팬데믹으로 선뜻 등록하지 못했던 새가족 분들이 매일아침 영상을 통해, 주일 강단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맛보고 온라인 등록

을 결단했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짝사랑했던 보고싶은 성도님들을 예배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믿음의 태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총괄)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2021년 저희는 기도로 한 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1년이 되었을 때만 해도 새해가 밝았다고보다 2020년 13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숲 안에 갇혀 이 길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올해는 과연 얼마나 많은 통제가 불가능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까 생각하다 보니 기대와 설렘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가면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나의 신앙의 고도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 정말 모든 게 다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2021년이 시작하는 데 있어 무엇 하나 노력한 게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 밤을 새워 잠을 자고 계절의 순환과 세월의 흐름에 무엇 하나 기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값없이 저에게 주어진 은혜였다. 그것을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날들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독수리가 창공을 날 듯, 높은 신앙의 고도를 유지하며 맛있게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삼의 지체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델교육부  
엘새 간증

# 첫 새벽을 여는 엘새기도회



엘리아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저희가 매년 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어른들의 예배를 통하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Craft시간은 정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Elliot Baek(6학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할 수 있었던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고 큰소리로 말씀하실 때는 졸다가도 확 깨어 새벽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새벽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경배함은 주님의 사랑에 답하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Chloe Byun(6학년)



엘리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Noel Jung(4학년)



엘리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일찍 일어나 보니 기분이 몹시 상쾌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 아래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특히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찬양 시간도 정말 좋았습니다. 일하시는 어른들과 일찍 일어나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좋았고 저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었던 복되고 귀한 새벽 제단이었습니다.

Sofia Kim(5학년)

베델사역  
엘새 간증

## 좋은 파동

매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기에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담임목사님께서 매일 나눠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른 어느 때 보다 이번 엘새에 참여하는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첫날은 다짐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단장을 했습니다. 흔들여 깨워도 미동도 않는 아들을 보며 그래 조금 더 자게 해주자, 교회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찬양을 마치고 다시 자는 아이를 흔들여 보지만 아이는 화만 날뿐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저와 함께 엘새를 시작한 아이였기에 이번해에도 어김없이 BYM에 엘새 등록을 하고 함께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는 일어나지 않았고, 말씀에 집중하려는 마음과 제가 기대했던 엘새의 모습에서 벗어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생각이 오가는 혼란 속에 첫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도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고 저도 기대했던 마음에 상처를 받아 힘든 상태에서 엘새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파동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함께 하는 이들이 신앙의 고도를 함께 높이며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저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보이는 것에는 더 힘을 썼지만, 오히려 집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0순위가 되어야 할 나의 선교지인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첫날부터 주신 말씀들이 온전히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적 욕심, 불만이 가득한 생각과 말투, 염려, 세상의 습관을 벗지 못하는 것이 모두 저의 모습이었고 제 습성임을 회개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새로운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감사하게 막내 동하도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여름부터 제게 계속 부여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my one prayer로 이번 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에게 이 말씀을 왜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좋은 파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저에게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큰 파동이 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파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박정화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 베델워십: 김섭리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규 목사
- 예삼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 예삼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홍리스/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 오케스트라: 박정영
-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 솔리스트: 최정원
-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 영아부: 윤희준 간사
-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종형, 이정희, 장석영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축하합니다!

## 베델 양육반, BAM, 바이블 클럽 수료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베델의 훈련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양육반과 BAM 훈련, 그리고 바이블 클럽의 수강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떠나려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훈련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양육반과 BAM 훈련은 온라인 스크린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며, 격려하며 훈련을 마쳤습니다.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바이블 클럽의 신청자분들 역시 각자의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양육반 29명, BAM 훈련 25명, 바이블 클럽 8명의 귀한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섬겨주신 양육 리더 분들과 BAM 훈련 강사 및 스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졸업식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 때 Zoom으로 강단 초청을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1월 24일 2부 예배 시 졸업생 모두를 직접 라이브로 초청하여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양육 리더분들과 BAM 훈련 강사분들은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같이 격려하고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육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 더 주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가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2월부터 시작되는 양육반과 바이블 클럽에 많이 등록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양육반 수료자> 29명** - 곽사라, 김동민, 김보영, 김성현, 김예리, 김진호, 김준희, 남정자, 민금숙, 박명환, 박현정, 박희원, 백성군, 서수지, 심진규, 양정미, 엄대석, 이영재, 이주연, 이준한, 이지애, 이혜선, 정영옥, 조민지, 조은주, 조종원, 최미영, 최유경, 황혜연

**<영어 양육반 수료자> 2명** - 서다영, 손주혜

**<BAM 수료자> 25명** - 김경재(2단계), 김미나, 김윤근, 김응진, 박기준, 박병임, 박은혜, 백권기, 백미영, 안경수, 오경희, 오미경, 윤영재, 이길수, 이우용, 이형구, 정승우, 조선영, 조희정, 차규양, 최두현, 최미정, 한정훈, 한지연, 황태영(1단계)

**<바이블 클럽 수료자> 9명** - 구영순, 김숙희, 김일혜, 김효정, 서정애, 선우명숙, 선우원근, 오영옥, 정영숙

위 분들을 수료식에 초대하오니 주일 2부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1월 24일(주일) 2부 예배 중
- ▶ 방식: Zoom을 통한 강단 초청
- ▶ Zoom 초청: 양육반, BAM 훈련, 바이블 클럽 수료자 및 양육 리더, BAM 훈련 강사

### 선교후원

-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명)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예배 캠페인(Worship Manner Campaign) "Non-Contact 시대, God-Contact 하라."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God-Contact 실천사항)

- ① 마음에도 옷이 필요합니다 -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하기.
② 자세는 태도입니다 - 바른 자세로 예배하기.
③ 몽땅 누리기 -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축도까지 예배하기.

◆ 수요특별기회 "프로젝트 아이엠" 팬데믹 기간, 나의 수요일이 바뀐다! "프로젝트 아이엠"이 매주 수요일에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3개의 특별 순서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는 11회가 방영됩니다. 시청방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교회 웹사이트 / 카톡채널 /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① 주보 읽어주는 남자-따끈따끈한 교회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해 드립니다.
② 나는 선지자다-소선지서의 핵심을 권별로 살펴봅니다. (20일 김홍식 목사-스가라)
③ 우리셀이 뭉쳤다-음식을 만들며 셀식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 베델 양육반, 바이블 클럽 등록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양육반과 바이블 클럽 복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목장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양육반: 2월 2일(화) 주간- 6월: 총 16주
바이블 클럽: 2월 2일(화) 주간- 5월 18일(화): 16주 반
2월 2일(화) 주간- 12월 21일(화): 48주 반
신청 기간/문의: 1월 17일(주일)-1월 31일(주일),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베델 제자 훈련 수료식 바이블 클럽, 양육반, 베델 BAM 훈련 수료식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방법/문의: 1월 24일(주일) 2부 예배, Zoom 온라인,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미디어와 교육 세미나(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과 GNS과 협력하여 'AI(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AI가 어떻게 미디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Zoom 특강을 실시합니다. Zoom 링크는 mygns.org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월 24일(주일) 오후 8시

◆ 단기선교팀장 모임 2021년 단기선교를 이끄는 모든 팀장님들이 모여 온라인 선교박람회를 준비하고, 선교팀 운영에 대한 제반 원칙들을 공유하는 모임이 1월 23일(토) 오전 10시에 Zoom으로 있습니다. 모든 단기선교 팀장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Zoom ID: 972 5792 0241

◆ 온라인 새가족 등록 베델교회에 등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하단에 '새가족 등록(WELCOME)'을 클릭하시고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바로 연락드립니다. 문의: 한순고 전도사 (714)612-4075

◆ 베델 온라인 선교 박람회 2021년 미션의 날이 "선교의 고도를 높여라"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소개관, 주 전서관(선교관/훈련관/사역관), 헌신관으로 꾸며지며, 금년 베델선교의 비전과 방향, 베델이 파송·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의 정보와 기도제목, 단기선교일정 그리고 베델선교훈련센터인 코람데오 아카데미의 선교 훈련과정과 선교 사역 등 베델선교에 관한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 한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방법: 1월 31일(주일), 온라인(웹사이트 주소는 당일 공개됩니다.)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카타콤기도회 각 가정과 일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기도의 문을 여는 카타콤이 되길 소망하며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방법: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Zoom(회의 ID: 935 9750 9413) \*이전에 사용하던 Zoom 회의 ID가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아부 새가족 등록 만 2세(24개월)가 된 영아들은 유아부로 새롭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담당 전도사에게 전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에게는 특별 선물이 있으며 반배정을 해드립니다. 문의: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 결산총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년 결산총회가 1월 27일(수) 온라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총회를 위한 등록과 자세한 사항은 카톡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회 일시: 1월 27일(수) 저녁 7시 30분 참가 신청: 1월 20일(수)-23일(토), 카톡채널을 통해 신청 가능

◆ 현금 내역서 2020년도 현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연락 주셔서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축하해주세요 - 김학성/김지영 집사 가정에 딸 김시온(Jenna)이 1월 12일(화)에 태어났습니다. - 최재환/안민수 성도 가정에 아들 최재희가 1월 14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이해철 장로/이영주 권사의 딸 이경주 자매와 문상순 형제의 결혼식이 1월 23일(토)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화섭 권사님께서 12월 23일(수)에, - 故 장영자 집사님(장유성 집사의 모친, 장유휘 집사의 시모)께서 1월 6일(수)에, - 故 한동건 집사님(한문자 권사의 남편)께서 1월 10일(주일)에, - 故 최성욱 권사님(전동기 집사의 장모, 전영순 권사의 모친)께서 1월 13일(수)에, - 故 김신자 성도님(김영석 성도의 부인)께서 1월 14일(목)에, - 故 하복순 권사님(하창남 집사의 부인)께서 1월 14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한나 권사 | 사 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 Tips for Finishing the Race of Faith

(Hebrews 12:1-3)

1. Share your experience if you have been to a racetrack. When and with whom did you go?
2. Imagine being cheered on by spectators who are great cloud of witnesses. Are we athletes competing in a race having received this kind of cheering? (1Cor 10:12, 1Cor 9:19-27)
3. Presented in the passage are few tips for finishing the race. Organize one by one and apply each of the meanings to us.

1) \_\_\_\_\_ (v.1, 1Cor 9:25)

2) \_\_\_\_\_ (v.2, 1Cor 9:26)

Looking to Jesus means?

3) \_\_\_\_\_ (vv. 2b-3)

4. Pray and encourage each other with a decision to run the race again.

■ Song in Response: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Apply to Life

